

성 숙 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김 효 진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 속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김 효 진

인 준 서

김효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것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와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와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분당과 수지에 거주하는 만 2세 영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 40명 총 80명(40쌍)이었다. 실험집단은 J교회 문화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20쌍으로 하였고, 통제집단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 3곳에 연구 협조를 의뢰하여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을 수락한 어머니와 영아 20쌍으로 하였다.

정서지능 검사는 영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Salovey와 Mayer

(1996)가 수정 제안한 정서지능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김경희(1999)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우경(2002) 연구의 도구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아의 정서지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영아의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과 대인관계기술이 향상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들이 영아의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아의 자기 정서이용과 타인 정서인식 및 배려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램 초기에 영아는 물건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나타내었고,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타냈다. 그러나 중기로 갈수록 영아의 활동성 증가와 어머니의 욕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소근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관심과 독립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말기에는 영아에게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어머니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영아에 대한 관심 증가, 자녀와의 놀이 및 교육에 대한 자신감,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뿌듯함의 경험 등이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엄마-영아 프로그램	6
1) 만 2세의 발달	6
2) 만 2세의 놀이	10
3) 엄마-영아 프로그램의 현황	12
2. 정서지능	13
1) 정서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13
2) 정서지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3. 부모역할만족도	20
1) 부모역할만족도의 개념	20
2)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의 대상	25
2. 연구의 도구	26

3. 연구의 절차	29
4. 자료 분석	42
IV. 결과 및 해석	44
V. 논의 및 결론	60
1. 논의	60
2. 결론 및 제언	6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수세기 동안에 유아교육과 아동발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생 후부터 3세가 될 때까지가 신체, 성격, 언어, 지능, 사회성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것들이 전 생애에 걸친 건전한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누구보다도 영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의 초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영아간의 상호 작용이 이후의 아동 발달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 시기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Fiese(1990)는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개입 효과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가 시범을 보이고 상호작용을 할 때 영아의 상징놀이 빈도가 더욱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Connell과 Bretherton(1984)은 아이들이 혼자 놀이할 때보다 어머니와 함께 놀이할 때 놀이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놀이의 복잡성 및 아이의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이경희 · 이영주, 2001, 재인용).

외국에서는 영아와 그의 부모를 위해서 비교적 다양한 영아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되어 왔다. 초기의 영아 프로그램은 Gorden(1966)의 Parent Education Infant and Toddler Program과 Levenstein(1967)의 Mother-Child Home Program과 같이 주로 저소득층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최근

에는 계층이나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아들의 발달과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실 예로 Nova University의 Family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Parent-Child Class"와 같은 부모-자녀 프로그램이 소개된 바 있다(이영 · 김은기, 2000, 재인용).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영아의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역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유형이 아직까지 많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 역시 영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전업 주부들의 경우 자녀 교육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시간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기관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정신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 즉, 정서적 능력이라는 점이 이야기 되고 있다. Goleman(1997)은 IQ가 출세와 성공의 20%를 설명하는 반면 정서지능은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며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문미옥 · 임미혜, 2000, 재인용).

정서지능이 생(生)의 초기부터 형성된다는 주장은 실험 연구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다. 특히 영아의 안정/불안 애착 유형이 이후 유아발달의 사회 · 정서적인 측면과 관계가 높다는 종단적 연구는 인간의 정서지능이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후 4년 동안 인간의 두뇌는 성인의 2/3 크기까지 성장하며 이 단계에서 신경의 결합은 이후의 생(生)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으로 빨리 형성되기 때문에 이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흡수한다. 그 중에서도 정서의 학습은 중요하다.

장내인(1997)은 유아의 두뇌는 2~4세 때 전두엽이 정교화 되면서 정서 지능이 발달하고 4~6세가 되면 말을 정확히 하게 되며 정서를 담당하는 우반구가 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유아기는 정서지능 개발의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엄마-영아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키고,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 놀이 방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도록 도움으로써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것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와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보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와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or Emotional Quotient)

정서지능은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목표 추구를 위해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및 유능감의 정도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 분당과 수지에 거주하는 만 2세 영아와 어머니 40쌍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배경이 유사하였지만, 영아의 이전 교육경험 등 모든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둘째, 영아의 발달 특성상 성인과 같이 자기보고식 검사, 또는 검사지를 통해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영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영아의 정서지능 검사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객관적으로 평정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어머니의 주관에 개입되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1. 엄마-영아 프로그램

1) 만 2세(24-36개월까지)의 발달

(1) 신체 운동 발달

24-36개월 시기는 먹기, 옷 입기, 씻기, 잠자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조기술(self-help skill)을 획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영희, 2000). 이 시기에 영아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만 2세 유아는 대근육 조절이 비교적 발달되어 어깨너머로 공 던지기, 세발자전거의 페달 밟기, 한 발로 1초 동안 서 있기, 난간 잡고 계단 오르기, 공차기 등이 가능하다. 소근육 조절 능력은 대근육보다 덜 발달되어 있다. 만 2세 유아는 소근육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을 요하는 작업에 아직 미숙하지만, 가위질하거나 굵적거리기 등의 행동을 하려고 애쓰면서 차차 발달되어 간다(정의영, 2003). 24개월의 영아는 간단한 물체를 끼워 맞추 수 있으며,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의 블록으로 탑을 쌓거나 길게 배열하기도 한다. 손가락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크레용으로 굵적거리는 행동을 좋아하며, 초기에는 뚜렷한 형태가 없는 선이나 점을 그리다가 점차적으로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한 형태를 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소근육이 발달하고 환경에 대한 탐색행동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물체를 만져보고 던져 보는 등 신체적 움직임이 매우 빈번해지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물체나 활동에 오래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만져 보고 던져 보는 행동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활동과 교재, 탐색과 발견을 위한 기회가 이 시기 영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장영희, 2000).

(2) 인지 발달

이 시기는 감각운동단계에서 전조작단계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이행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정신적 표상능력이다. 정신적 표상이 가능함에 따라 가상놀이와 상상놀이가 나타나게 된다(장영희, 2000). 만 2세 영아는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물체를 조작하고 탐색하는 방식을 배우고, 개인적 효능감을 느끼면서 독립적이 된다. 또한 상징적 표상능력이 발달하면서, 관찰한 모델의 행동을 머리 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의 적절한 시기에 그 행동을 모방하는 지연모방이 가능해진다(김익균 외, 2002). 이 시기 영아의 인지적 특징은 ‘지연모방’ ‘사물영속성’ ‘가상놀이’ ‘상징놀이의 출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세아의 이러한 인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영아가 직접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영역과 자료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영희, 2000).

(3) 언어 발달

2세 경에 이르면 어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50~300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약 50개의 단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영아는 세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성인의 언어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격조사가 나타나고 동사의 시제가 변화됨으로써 어휘의 단순한 추가가 아닌 형태의 변화를 통한 언어 발달이 진행된다. 2세아는 그림책을 보거나 듣는 것을 즐기며 문자언어를 인식하게 되고 글자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2세아를 위한 활동을 계획할 때 언어 영역의 구성 및 이들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제공하고 읽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

러 가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굵적거리 보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장영희, 2000).

(4) 사회 · 정서 발달

만 2세가 되면 분명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부정의 표현이 많아진다. 2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자기주장의 형태는 ‘아니야’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등의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기 장난감, 옷, 집,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까지도 강한 소유욕을 나타낸다. 이들의 소유욕 역시 원초적인 자아감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며 도움을 주려고 하면 뿌리치기도 한다. 2세아의 독립심에 대한 욕구는 고집, 완고함, 부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타협도 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면 밖에 있자고 하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실내로 들어오라 하면 밖에 있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는 청소년기의 반항과는 다르며 이는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장영희, 2000). 그러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해가고,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향상되어가기 때문에 24개월 이후부터는 심하게 울거나 성질을 몹시 부리는 행동 등은 오히려 줄어들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증가하게 된다(김익균 외, 2002). 2세아의 언어발달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언어발달로 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세아는 성인과 또래에게 자신의 애정을 주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 한다. 그러나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은 간단하며 시간도 짧다. 그들은 다른 영아와 함께 있고자 하지만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만

24개월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발달적 변화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걸음마기 아동은 양육자와 쉽게 분리되어 놀고 주변을 탐색한다.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과감히 멀리 떨어져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이 증가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물체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시도할 때, 양육자의 얼굴 표정이나 음조 등을 단서로 사용하는 사회적 참조행동이 보다 뚜렷해지며,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이 일어난다(박성연 외, 1999).

<표1>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징

영역	발달 특징		
신체	대근육을 이용한 운동 기술	걸기와 달리기	좀 더 리드믹하게 걷기, 다리를 넓게 벌리고 켜 걸음으로 걷기, 팔과 다리를 반대로 흔들면서 걷기, 달리는 것처럼 빨리 걷기
		점프하기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팔을 흔들지 않고 두 팔로 몇 센티 점프하기
		호핑(hopping)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한쪽 발로 1~3번 호핑하기
		던지기과 잡기	어깨와 팔, 발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팔뚝만 뻗으며 공을 던짐, 공을 잡을 때도 팔만 뻗어서 공이 앞으로 오기까지 기다림
		패달 밟기와 조종하기	탈 것들을 밀고 다님, 핸들을 약간 조종할 수 있음
	미세 운동 기술	옷 입고 벗기	단순한 옷 입고 벗기 가능, 커다란 지퍼를 올리고 내리기 가능

		먹기	손가락 사용 능숙
		기타	손잡이를 돌림으로써 문을 열 수 있음, 커다란 구슬 꿰기 가능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상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해 언어, 상상놀이, 상징(예: 사진, 모델, 간단한 도형)을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함 -상상놀이 시 실제 장난감에 대한 의존도 약화, 자기중심성 약화, 놀이의 복잡성 증가 -단순한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 이해 가능 -재인 기억의 향상 -내부의 정신적 상태와 외부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시작함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수 급증 -기본적인 어순을 토대로 문장 구성 -문법적 규칙의 발달 증가 -대화를 나눌 때 차례 지키기와 동일한 화제 내에서 이야기하기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증진
사회/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함 -의도적인 행동과 비의도적인 행동 간의 구별 가능 -또래 친구와의 협동 가능 -물건 빼앗기 등과 같은 도구적인 공격적 발생 -기본적인 정서의 원인과 결과 이해 가능 -감정 이입의 증가 -성 유형화된 믿음과 행동의 증가

*출처: Berk, 1994

2) 만 2세(24-36개월까지)의 놀이

2세 영아의 놀이를 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세 영

아들은 감각운동의 발달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걷고 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움직임이 안정되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다. 흔들 목마 타기, 공 던지고 받기를 좋아하며 끌고 다니는 놀잇감도 좋아한다. 눈과 손의 협응력도 발달하여 물건을 다른 물건 위에 포개 쌓는 놀이나 구멍에 모양 맞추어 넣는 놀이를 즐겨하며 크레파스를 잡고 굽적거리는 놀이도 가능하다. 또한 블록을 들고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거나 가볍고 커다란 블록을 가지고 쌓기 놀이를 즐겨한다(이숙재, 1997).

Sroufe(1979)는 2세 시기가 자아개념과 동일시의 형성시기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개념이 발달하고, 환상과 놀이에서 성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한다고 하였다(이영자 · 이기숙, 1993, 재인용). 만 2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의 단순한 역할놀이, 예를 들어 마루닦기, 인형돌보기, 빨래하기 등의 놀이를 좋아한다. 이 시기에는 성역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여 주변 성인의 성역할을 모방하는 놀이를 한다(강문희 외, 1999). 또한 상징적 표상이 가능함에 따라 상상놀이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놀이를 할 때 형태가 유사한 사물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두루마기 휴지 속심을 전화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이숙재, 1997).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전조작기가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감각 운동 놀이를 많이 한다. 물감, 점토, 모래와 같은 놀잇감은 2세아에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며 이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료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숙재, 1997).

2세의 영아는 공포와 분노, 애정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독립심의 증가로 자주 부정과 반항을 표시한다. Wilson(1986)은 영아들이 현실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놀이를 통해 표현한다고 하였다(이주은, 2004, 재인용). 2세 영아는 자기중심적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때로는 순서를 기다리기도 하며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래와 협

동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다. 2세 반경에 이르면 다른 영아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만, 놀잇감을 놓고 싸우는 형태가 많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 2세 말경에는 협동놀이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며 사회적 기술도 발달하게 된다(이주은, 2004).

3) 엄마-영아 프로그램의 현황

우리나라에 소개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영유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기술 증진을 꾀하는 프로그램인 연세대학교의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경희·이영주(2001)를 참고하였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에서 만 2세 영아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아의 발달 증진과 어머니-영아 간의 안정된 애착 및 어머니-영아의 상호 작용 기술 증진이다. 2세 발달에 적합하며,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신체 활동, 언어 활동, 탐색 활동, 극화 활동, 쌓기 활동, 물·모래 놀이 활동, 음률 활동, 미술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한 학기가 16주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2회, 1일 1시간 30분씩 수업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하루 일과는 등원한 후 그 날의 놀이를 소개하기 전까지 자유놀이를 하

다가 놀이 소개를 위해 집단으로 모인 후 30분간의 실내 놀이 및 활동을 한다. 실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정리 정돈 시간을 가진 후 밖으로 이동하여 20분간의 실외 놀이 및 활동을 하고 귀가시키는 것으로 진행된다. 보통 하루에 두 개 정도의 놀이가 소개되며 어머니들은 교사의 교수 방법을 배워 아이와 적절한 언어적 상호 작용을 하도록 격려된다.

이영·김온기(2000)의 연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 연구결과를 보면 영아와 어머니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는 영아에게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또한 과제 수행 시 영아의 동기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하였으며, 영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였고, 과제에 대한 지시를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영아는 어머니의 제안을 듣거나 어머니의 요구에 더 순응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즐거운 감정 및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려는 표현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영아간 애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짐보리’ ‘아마데우스’ ‘짐댄디’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한 문화 센터 중심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최근에 와서 전통적인 학업중심의 지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능이론들이

대두되면서, 학업적성 중심의 IQ 개념만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리고 좀더 확대된 지능의 개념, 개인의 성공적 삶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을 찾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회적 지능과 그 측정, 그리고 사회적 지능에 착안한 정서지능의 개념이다.

Salovey와 Mayer(1990)의 정의에 따르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지능의 한 부분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Salovey와 Mayer(1990)는 초기에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즉,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의 3영역 10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의 초기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Goleman(1995) 역시 그의 저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정서지능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절망적인 순간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능력이 방해받지 않게 하며,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정서지능의 개념을 자신의 정서 인식(self-awareness) 및 자신의 정서 조절(managing emotions), 동기화(motivating oneself), 타인의 정서 인식(recognizing emotions in others), 대인관계기술(handling relationships) 등 5개의 하위구성 요소로 설명하였다(이지선, 2002, 재인용).

Salovey와 Mayer(1996)는 정서지능에 대한 그들의 초기 개념에서 감정에 관한 사고 과정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을 이유로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그들은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사고 촉진을 위하여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정

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Salovey와 Mayer(1996)의 정서지능 모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Salovey와 Mayer(1996)의 정서지능 수정 개념 모형

영역 I. 정서의 지각과 인식 및 표현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자신의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표현된 정서를 구별하기

영역 II. 정서적 사고 촉진			
정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고려하기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촉진하기

영역 III.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를 명명하며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인식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복합 감정 이해하기	정서들 간의 전환 가능성 인식하기

영역 IV. 정서의 조절			
정적, 부적 정서들을 모두	자신의 정서에 거리를 두거나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받아들이기	반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정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기	
-------	----------------	----------------------	--

*출처: Mayer & Salovey, 1997

Shapiro(1997)는 정서지능이란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질(quality)을 기술했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즉, 예전부터 인성 또는 성격이라고 불려왔던 특성인 감정이입,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자신의 기분을 관리하기, 독립심, 협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지구력, 친화력, 친절, 존경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문미옥 · 임미혜, 2000).

한편 문용린(1998)과 이원영(1996)은 정서지능을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인식, 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도 고려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김경희(1998)는 Goleman의 정서지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목표 추구를 위해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 정서를 인지하고,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는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이용, 타인 정서인식 및 배려,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6개의 정서지능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2) 정서지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서지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발달요인, 사회적

발달요인, 교육적 발달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발달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Mayer와 Salovey(1996)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도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곽윤정(1997)은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주리(2002)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사춘기가 되면서 낮아지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서지능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정서지능의 발달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와 다르지 않다는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병래(1997)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정서지능이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윤현석(199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곽윤정(1997)의 연구에서는 남녀에 따라 정서지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arfe(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에 들어서면 인지 능력과 더불어 정서 표현과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이 확장된다. 또한,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정서 인식 능력의 경우 유아기부터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유아가 보이는 정서 신호에 대한 표현 반응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주로 정서 인식과 표현 체제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유아의 정서 인식과 표현 체제는 이후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Izard(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 신호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유아의 능력을 통해서 정서능력과 적응력은 인지발달과 독립적인 것임이 밝혀졌으며, 일부 신생아는 사회적 자극이나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각성의 역치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능력의 발달에 대한 선천적 요인의 영향을 밝혀주는 증거가 된다(백중열, 2005, 재인용).

둘째, 사회적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Goleman(1995)은 정서

지능의 발달이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경험이 함께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Saarni(2000)는 대부분 부모의 사회화가 아동의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발달요인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원영(1996)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은 영·유아의 정서적 경험이 편도복합체에 쌓인 후 그 유아가 성장한 이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병래(1997)는 만 5세 유아 부모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셋째, 교육적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ayer와 Geher(1996)는 생물학적으로 낮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이나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Greenburg, Kusche, Cook & Quamma(1995)도 학창시절 유아들의 정서적인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Sternberg(1997)는 유아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대부분 성공하였다고 하였다(정황순, 2001, 재인용). 정서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서지능 발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되도록 시도하는 교육 활동이며 이 교육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 모두가 포함된다(유광선, 1998). 그 대표적 예를 보면 뉴바 학습센터(Nueva Learning Center)가 있는데 이곳의 셀프 사이언스(self-science)교육과정은 대표적 정서지능 교육과정으로 유치원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자기인식, 개인적 의사결정, 감정처리, 스트레스 처리, 감정이입, 의사소통, 자기노출, 통찰, 자기용납, 개인적 책임, 자기주장, 집단역할, 갈등해

결 능력 등을 다룬다. 수업방법으로는 협동적 수업방법이 사용되고 개인적 가정과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주제로 다룬다(정황순, 2001).

우리나라에서 유아와 아동을 위하여 개발 또는 시도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황의명과 박찬옥(1998)의 ‘감성교육 프로그램’, 임미혜(1998)의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프로그램’, 김기현외(1998)의 ‘마음의 힘 키우기’, 이영석(1998)의 ‘감성교육 프로그램’, 이영자 · 신은수 · 이종숙(2000)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곽현주(1995)에 의하면 유아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 충동적으로 또는 힘을 사용하여 해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행하도록 명령 위협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아들에게 정서교육을 실시한 결과 좀 더 높은 수준인 타인과의 상호 협동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 문제 해결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정서교육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Mayer & Salovey(1997)는 정서지식 교육이란 표준 교과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미 통합되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문학은 정서지식의 인식, 이해 및 습득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미술, 영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 등은 정서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잠재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정서 지능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최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들이 단지 이러한 다중차원(multi-dimensional)지능의 한 차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서지능 프로그램 계획자는 정서지능 교육을 받게 될 유아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의 시스템을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정서라는 부분이 생의 초기에 형성되며 인생동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영

아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것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3. 부모역할 만족도

1) 부모역할 만족도의 개념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 첫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경험을 한다. Nye와 Berado(1976)는 역할이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수행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특징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현온강, 1994 재인용). 이를 통해 부모역할이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특징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역할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변화’이다. 즉 역할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Rollins와 Galligan(1978)은 이러한 역할의 변화를 ‘역할전이’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훌륭한 부모란 어떤 것이며, 부모와 아동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부모라는 새로운 위기를 맡게 됨으로 다른 어떤 역할 전이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려운 역할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현온강, 1994, 재인용).

그러나 부모역할 지각에 대해 위기의 관점에서 벗어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Russell(1974)은 「부모기의 전환: 문제와 만족감」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해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부모 됨도 인간 발달단계의 한 국면이며 이는 정상적인 위기

이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곽정인, 1999, 재인용).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모 됨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만족, 태도와 신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역할 만족도는 성인의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소를 경감시켜 성인이 지각하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임연신, 2002).

국내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을 만족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강희경, 1994; 곽정인, 1999; 배지혜외 2인, 2002; 임연신, 2002; 임형아, 2004; 이기순, 2003; 이혜란, 1994; 현온강, 1994). 현온강(1994)은 부모역할 개념이 다차원적이며 동시에 여러 가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도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Bowen(1982)은 부모역할 만족도를 자녀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기쁨과 유능감의 주관적 영역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및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도현심 · 김지신 1997, 재인용).

2)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녀와 관련된 요인, 부모 자신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관련된 요인은 자녀의 성별, 연령, 자녀 수, 건강상태, 원하던 출산여부, 자녀의 기질 등을 포함한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하여 김향은 · 정옥분(1999)의 연구에서는 여아를 둔 부모의 역

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경, 1990; 문혁준, 2001; 양연숙, 1997; 이해란, 1984; 현온강, 1994). Veroff(1970)와 Lowenthal(1975)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역할 만족도 비교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 만족도가 높고, 자녀가 성인일 때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정선, 1989; 현온강, 1984; 조복희 · 양연숙, 1997). 자녀수에 대하여는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낸다(이해란, 1984; 현온강, 1994). 원하던 출산일 때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이해란(1984)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을 갖지 못했다. 자녀의 기질 역시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가 양육하기에 양순한 기질일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일관성 있는 선행연구(Russell, 1974; Simons, 1990)가 있는데, 이는 현온강(1994)의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임연신, 2002, 재인용).

둘째, 부모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은 부모의 외형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가치관 요인을 포함한다. 외형적인 요인은 부모 자신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말하며, 정서적인 요인은 부모의 성장시기의 행복도, 부모의 헌신적 성격,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을 말한다. 또한 가치관 요인은 평등적 부모역할관과 남편의 가사 참여도를 말한다(곽정인, 1999).

어머니의 연령과 관련된 강희경(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숙도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현온강 · 조복희(1994)와 문혁준(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곽은복, 1991; 김향은 · 정옥분, 1999; 문혁준, 2001)이 있다. 그러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된 연구결과도 있다(현온강, 1994). 가정의 소득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보면 곽은복(1991)과 문혁준(2001)의 연구에서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연숙(1997)의 연구에서는 월수입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온강(1994)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높은 집단이 오히려 만족도가 낮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실제적인 수입의 양보다 심리적 상태로써의 경제적 불안감이 부모의 역할만족도를 경감시키는 주요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문혁준, 2001). 정서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은 이들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현온강, 1994).

Bowen(1982)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기능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스러워 했다고 보고하였다(도현심 · 김지신, 1997, 재인용). Abernethy(1973)는 사회적 친교가 강한 어머니는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현온강, 1994, 재인용). 유우영, 최진아와 이숙(1998)의 연구에서도 주위 사람과 가족원으로부터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 자녀양육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는 사람 수가 많고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 즉 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이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로 역할 된다면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분당과 수지에 거주하는 만 2세 영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 40명 총 80명(40쌍)이었다. 실험집단은 J교회 문화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25쌍 중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한 20쌍으로 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 3곳에 연구 협조를 의뢰하여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을 수락한 어머니와 영아 20쌍으로 하였다. 이 두 집단의 가정 배경은 거의 유사하여 대부분의 부모 연령은 30대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비취업모 가정들이었으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남편의 일을 돕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연구 대상 영아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태어난 유아들로 조사당시 평균 연령은 29개월이었다.

<표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빈도	빈도
영아의 성별	남	13	12
	여	7	8
영아의 연령	24-30개월	10	11
	31-36개월	10	9

형제관계	유	14	8
	무	6	12
교육경험 여부	유	9	13
	무	11	7
어머니의 연령	만 30세 미만	1	2
	만 30세 이상-만 40세 이하	18	18
	만 40세 이상	1	0
어머니의 취업 유무	유	2	1
	무	18	19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	2	1
	대졸	16	15
	대학원졸	2	4
경제적 배경	상	0	0
	중	20	20
	하	0	0
거주지역	수지	16	14
	분당	4	6
전 체		20	20

2. 연구도구

1) 정서지능

정서지능 검사는 영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Salovey와 Mayer(1996)가 수정 제안한 정서지능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김경희

(1999)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상 성인과 같이 자기보고식 검사, 또는 검사지를 통해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연구대상의 아이들 모두 현재 특정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사전 사후 검사로 이루어졌으므로 교사 또는 본 연구자의 평정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영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본 검사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김경희(1999)의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는 자기 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6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의 발달 상 맞지 않는 문항 5개를 삭제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부모를 포함한 일반 성인과 관계로 대체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맞도록 9개의 문항에서 어휘를 수정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4> 어머니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의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배점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7	1, 2, 3, 4, 5, *6, 7	35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	9	*9, *10, *11, 12, *13, *14, *15, *18, 19	45
자기 정서의 이용	11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55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10	29, 30, *31, 32, 33, 34, 35, 36, 41, 44	50
대인 관계 기술	성인과의 관계	5	8, 37, 38, 39, 40	25
	또래와의 관계	3	42, 43, 45	15

* 역채점 문항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점수는 영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긍정문항의 경우 90%이상 일치하면 5점, 70%정도 일치하면 4점, 50%정도 일치하면 3점, 30%정도 일치하면 2점, 90%이상 불일치하면 1점으로 채점한다. 부정문항의 경우는 긍정문항과 역으로 채점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45-225점까지 이다.

2)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우경(2002) 연구의 도구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 만족도의 내용은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들을 나타내는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 관계,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반영하는 부모역할 갈등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다만 부

정적인 문항인 부모 역할 갈등 요인은 ‘정말 그렇다’에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도록 재부호화 한 후 합산하며 총 점수 범위는 30-150점까지 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예비검사, 연구보조자 훈련, 사전검사, 본 실험, 사후검사의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 기간은 2005년 1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였다.

1) 예비검사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 먼저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이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그 후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대상이 아닌 만 2세 영아와 그의 어머니 4쌍을 대상으로 2005년 1월 26일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만 2세 영아에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 2문항을 추가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1월 28일에 영아-어머니 2쌍에게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결과 만 2세 영아의 정서지능을 어머니가 평정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또한 별 무리 없이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보조자 훈련

연구 보조자 훈련은 2005년 2월 2일과 4일 2회에 걸쳐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

이 프로그램」의 활동과 일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3)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2005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2월 17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 연구자 2인이 어머니가 검사에 임할 동안 영아와 함께 놀이하고 간식을 먹도록 도와주었다. 통제집단은 수지, 분당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에 연구 협조를 의뢰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경우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4) 본 실험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1)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 실시 방법

본 프로그램은 2005년 2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주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총 16회를 실시하였다. 장소는 수지에 위치한 J교회 어린이교실에서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이 함께 일 일 50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만 2세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수준의 격차가 현저하였으며 또한 인원수의 이유로 A, B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였다. 더 큰 연령인 31-36개월을 A반으로 하여 먼저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까지 진행하였고, 24-30개월을 B반으로 하여 20분의 준비시간을 가진 후인 11시 4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2)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특별히 영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꾀하고, 어머니-영아 놀이의 기술 증진을 통한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박찬옥과 김은희(1995)는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점을 두면서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 측면이 통합되는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기숙과 이영자(1993)도 2~3세 유아를 위한 교육 과정은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한 경험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조성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영아와 어머니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영아의 교육 목표

- ① 자율성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기른다.
 - ② 또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③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배운다.
 - ④ 대·소근육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을 통해 신체 발달을 도모한다.
 - ⑤ 사고하고 기억하며 분류하는 등의 인지적인 능력을 기른다.
 - ⑥ 언어 발달 및 문어 발달을 도모한다.
 - ⑦ 소도구 및 악기 탐색 등의 활동을 통해 탐구심과 성취감을 갖는다.
 - ⑧ 엄마와 함께 놀이함으로써 엄마와의 긴장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어머니의 교육 목표

-
- ① 수업 참여시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자녀를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③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 ④ 교사의 역할을 관찰함으로써 놀이 상대자로서의 기술을 향상시킨다.
 - ⑤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⑥ 가정과 연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한다.
-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어머니들에게 프로그램에 바라는 것을 묻은 결과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다.

우선은 영아가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하기를 바랐고, 다음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다. 또한 동적인 신체 활동에 대한 요구, 노래와 율동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는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기 원했고, 양육 정보를 나누기 원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만 2세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영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꾀하는 놀이와 활동으로 사회·정서 발달 뿐 아니라 신체 발달을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 등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또래 및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신나는 활동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내용-부록3 참고)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 놀이 프로그램」의 활동은 이경희·이영주(2001)의 ‘엄마·아이 놀이 프로그램’, 임경아·박낭자·이순영(1997)의 ‘영아중심 놀이 활동 프로그램’, 김희진·김언아·홍희란(2004)의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정진·성원경(2004)의 유아놀이와

게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4가지 활동은 본 연구자가 고안하여 유아 교육 전문가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프로그램의 일과는 우선 엄마와 영아가 함께 등원하여 개별 인사한 후 환경 탐색 및 적응의 시간을 가진 후 대집단으로 모여 인사를 나누고 출석을 확인하였다.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시기는 상상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그림책을 통해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영아가 그 이야기와 관련지어 신체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그 주제에 맞는 조형놀이를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 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와 양육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된 놀이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6> 영아놀이의 내용

(* 활동사진-부록4 참고)

회 주제	이야기 들려주기	신체놀이	노래	조형놀이	어머니와 만남
1회 곰	곰에 대한 이야기	유모차 놀이 (동굴 속으로 아기 곰돌이를 데려다 주세요)	곰 세마리	곰돌이 가면 놀이	만 2세 영아의 발달특성
2회 해님 달님	해님 달님에 대한 이야기	보물찾기 놀이	둥글게 둥글게	손바닥 찍기 놀이 (해님 리스 만들기)	
3회	동물들과 검피 아저씨의 뱃놀 이 이야기	풍선 놀이	가위로 만들어요	핑거 페인팅	고집 센 아이

동물					
4회	친구에 대한 이야기	잡기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는 어디 있나?	인사 놀이 (명함 만들기 + 친구와 인사나누기)	대화 나누기 - 상호작용 방법
친구					
5회	끈에 대한 이 야기	거미줄 놀이 기차 놀이	코끼리와 거미줄	실 빼기	
거미					
6회	색깔 기차 이 야기	색깔 찾아오기 게임	멋쟁이 토마토	색 섞기 놀이	
색깔					
7회	감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악기연주 놀이 나만의 마라카스		얼굴 표정 놀이	
얼굴 표정					
8회	*몸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선 따라 걷기 호키 포키	머리 어깨 무릎 발	내 몸을 그려봐요	
몸					
9회	*꽃씨 심기	리본막대 놀이	씨앗	손가락 찌기, 모루도장 찌기 (봄 동산 꾸미 기)	
봄					
10회		인형 및 팔 주머니 던지기	비행기	모양종이 놀이 시계 놀이	
도형					
11회	*가게 놀이		시장 잔치	신문지 공	바람직한

신문		신문지 올림픽 신문지 비 놀이		만들기	부모자녀 관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12회 물고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방석 배 타기 놀 이	그대로 멈춰라	물고기 모빌	
13회 나들이		산책하기 비눗방울 놀이	나비	꽃잎 빵기 진달래 꽃나무 만들기	기본생활 습관- 엄마를 돕는 아이
14회 과자 놀이		과자 따먹기 과자 나무 놀이	통통통	과자 목걸이 꽃 책갈피 만들기	
15회 점토 놀이		공놀이 (공 굴리며 전달하기)	가위로 만들어요	점토 놀이	지나친 조기교육 열풍- 일방적인 계획표 문제
16회 헤어 집	*평가회 *콘 푸레이크 먹기	포스트잇 떼기 놀이	옆에옆에	상자그림 놀이	

이 중에서 제 7회에 실시하였던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7> 제 7회 활동의 예시

제 7회

주제		얼굴표정		
목표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관련된 어휘를 안다. · 소도구 및 악기 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한다.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여시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 영아의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아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발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시간 ·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준비물
10:30-10:35 등원 및 인사 나누기		영아	엄마	카세트 플레이어, 노래 테이프, 명찰, 출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으로 영아와 어머니 맞이하기 및 인사나누기 · 신발과 옷, 가방 정리하기 · 명찰 착용하기 · 모여서 ‘안녕 안녕’ 노래로 인사하기 · 출석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를 나누고 정리한 후 영아와 함께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 모여서 인사를 나눈다. 	
10:35-10:50 이야기 들려주기	정서지능 하위요소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타인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돼, 데이빗! (데이빗 새논 글·그림, 지경사) ① 이야기를 듣는다. T: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야. 너희들도 한 번 들어볼래? 정말 재미있거든~ ② 이야기를 마친 후 다시 동화의 그림을 보며 그 때 마다 주인공의 표정이 어떤지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아와 함께 이야기를 듣는다. ② 데이빗의 얼굴 표정에 대해 영아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M:어떤 것 같아? 	동화책 (* 5cut만 투명테이프로 표시하여 들려준다)

<p style="text-align: center;">조형 놀이</p>	<p>인식 및 배려</p> <p>기본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관련된 어휘를 안다.</p>	<p>T:이 때 데이빗의 얼굴 표정은 어때? C:화난거 같아요~ T:그래 정말 화가났나보다. 이 때는 엄마한테 혼나서 화가 많이 났나봐~ ③ 엄마와 함께 거울을 보며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 등의 감정을 표현해 본다. T:우리도 이 때의 데이빗처럼 얼굴표정을 지어보자~엄마랑 함께 거울을 보면서 해보자 T:마지막에 데이빗은 엄마가 안아주어서 정말 기쁘가보다 T: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안아주시면 정말 행복하지? C:네~</p> <p>· 얼굴 표정 꾸미기 ① 종이를 반 썬 두 번 접는다. ② 그 위에 사람 모양을 그린다. (모양 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아가 원하는 모습을 엄마가 그려준다.) * 이 때 팔이 연결되도록 유의한다. ③ 가위로 오려서 엄마와 함께 펼쳐 그 모양을 본다. ④ 네 가지(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 얼굴 표정들을 엄마와 함께</p>	<p>M:그래. 진짜 화났나보다. 그치? ③ 영아와 거울을 보며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본다. M:OO야! 저기 데이빗처럼 슬픈 표정을 해볼까? M:(거울을 보며) 흐흫~엄마는 슬퍼. M:(거울을 보며 주며)OO도~ ④ 영아를 안아주며 사랑을 표현 한다. T:어머니께서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p> <p>① 종이 접는 것을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준다. ② 영아가 원하</p>	<p>거울</p> <p>사람 모양 본, 다양한 색의 종이, 가위, 연필, 싸인펜, 색연필, 매직</p>
--	---	---	--	---

		종이인형 얼굴에 꾸며본다.	<p>는 사람모양을 그린 후 오리도 록 돕는다.</p> <p>③ 영아와 함께 펼쳐서 그 모양을 본다.</p> <p>④ 네가지 얼굴 표정을 영아와 함께 꾸며본다.</p>	
10:50-11:10	<p>정서지능 하위요소</p> <p>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p> <p>소도구 및 악기 탐색등의 활동을 통해 탐구심과 성취감을 갖는다.</p> <p>소리 변별력을</p>	<p>· 여러 가지 악기 연주하기</p> <p>① 우드블럭, 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탬버린, 심벌즈 등을 하나씩 소개하고 영아가 탐색해 보도록 한다.</p> <p>T:(똑똑똑~) 이건 우드블럭 이라고 하는 악기야. 양쪽이 다른 소리가 나지~</p> <p>C:우와~~똑똑...</p> <p>T:우리 친구들이 우드블럭을 가지고 엄마에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주겠니?</p> <p>C:(우드블럭을 두드리며)엄마 들 어봐~똑 딱 소리가 나지?</p> <p>(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탬버린, 심벌즈 등 다른 악기들도 동일하게 탐색해 본다.)</p> <p>② 노래를 부르며 악기 연주를 해 본다.</p> <p>T:자 이번에는 가장 맘에 드는 악기를 하나씩 골라보자~</p>	<p>① 악기소리를 감상하고 표현 해준다.</p> <p>T:어머니께서는 친구들과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p> <p>M:우와~이건 심벌즈구나! 짹! 큰소리가 나네~</p> <p>② 악기를 연주할 때 노래를 함께 불러준다.</p>	<p>여러 가지 악기 (우드 블럭, 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탬버린, 심벌즈 등)</p>

<p>탐색 놀이</p>	<p>키우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p>	<p>T:이번에는 ‘즐겁게 두드리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노래를 부르며 연주해보자. 하지만 ‘멈춰라’에서는 멈추고 악기 소리 내기 않기!</p> <p>· 나만의 마라카스</p> <p>① 마라카스를 만들기 위해 그 속에 넣을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여 본다.</p> <p>T:이 악기가 바로 마라카스지.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각자 자신의 마라카스를 만들어 볼 거야~</p> <p>T:그 속에 넣을 여러 가지 재료를 선생님이 준비했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p> <p>T:만져보니까 이건 느낌이 어때? 우리 엄마랑 함께 다양한 재료를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그런데 이쭉시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p> <p>C:콩은 맨질맨질해요~ 이쭉시게는 길쭉하고 딱따워.</p> <p>C:돌은 울퉁불퉁해~ 쌀은 ...</p> <p>② 통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보고 그 소리를 들어보며 엄마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다.</p> <p>T:자기가 하고 싶은 통을 골라서 재료를 넣어보자.</p>	<p>① 영아와 함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이야기 나눈다.</p> <p>M:이건 느낌이 어때?</p> <p>M:엄마는 이건 차가운거 같아</p> <p>② 영아가 통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보도록 도와주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p> <p>M:콩을 넣으니 이런 소리가 나네~</p> <p>M:이건 듣기 좋니?</p> <p>M:그래. 이젠 좀 큰 소리가 나는구나.</p> <p>③ 영아가 자신의 마라카스를 만들도록 돕는</p>	<p>플라스틱 통, 캔, 종이상자, 곡식류(쌀, 콩, 팥), 돌, 흙,</p> <p>클립, 이쭉시게, 고무줄, 빨대 자른 것, 투명테이프 가위, 색 시트지,</p>
--------------	--------------------------	--	---	---

신체 놀이		<p>C:나는 큰 깡통! 콩을 넣어봐야지~</p> <p>C:엄마! 난 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p> <p>C:이번엔 돌을 넣어봐야지. (넣은 후 흔들어본다)아~시끄러.</p> <p>③ 엄마와 함께 상의하여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재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마라카스를 만든다.</p> <p>C:엄마! 난 쌀 소리가 좋아~ 클립도 넣을래.</p> <p>④ 모양 색 시트지를 붙여서 통을 꾸민다.</p> <p>⑤ 춤추면서 마라카스를 연주한다.</p> <p>T:자! 이제는 일어서서 이리로 오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노래에 맞추어서 마라카스를 연주해 볼게요. 노래가 나오면 뛰고 춤추면서 연주해 보고, ‘멈춰라’라는 가사가 나오면 악기 연주를 멈추고, 제자리에 서보는 거예요.</p>	<p>다.</p> <p>M:우리OO는 어떤 것을 넣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p>	
11:10-11:15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기 · 모여서 ‘안녕 안녕’ 노래로 인사하기 		

11:15- 11:25 어머니 와 만남		· 자율성에 대하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교육 자료 (표8 참고)
-----------------------------------	--	---------------------------	-----------------------

다음은 7회에 실시하였던 부모교육의 내용이다.

<표8> 부모 교육 내용의 예

자율성! 이렇게 길러 주세요
<p>첫돌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스스로 무엇이든 해 보려는 강한 행동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컵에 우유를 따라 먹여 주려고 하면 이전처럼 즐겁게 받아먹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기어이 컵을 빼앗아 제가 먹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행여 우유를 엷지를 것 같아 조바심을 내며 엄마가 잡아 주려고 하면 막무가내로 뿌리치며 혼자서 하겠다고 떼를 쓰기도 하지요.</p> <p>세수를 시키려고 해도 뿌리치고 혼자 하겠다고 하고, 숟가락을 잘 잡지도 못하는 주제에 한사코 엄마에게서 숟가락을 빼앗아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합니다. 물론 얼굴에 비누투성이를 하고 숟가락의 밥을 폭삭 방바닥에 쏟기 일쑤지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어머니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밉살스럽기도 하시지요?</p> <p>하지만 고집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는 아이를 조금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이가 요즘 들어 유난을 떠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밉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혼자 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자연은 우리 아이에게 자율성을 훈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기 일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연적 욕망의 시작이며,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동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p> <p>고집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는 어떤 강한 힘이 내적으로부터 강</p>

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돌이 지나 세 돌이 될 때까지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지요. 자! 그러면 이때 어머니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동으로 하여금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우유를 마시겠다고 하면, 혼자서 마시도록 즐겁게 허용하세요. 컵에 우유를 조금만 따라 주어 웬만큼 흔들어도 엎질러지지 않도록 조치해 놓고 실수 없이 마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넌 아직 미숙하니 엄마가 해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태도는 자녀에게 실패의 경험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실행한 행동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자주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면 아동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되고 일생을 살아갈 중요한 성격 특성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 출처: 엄마·아이 놀이 프로그램. 이경희·이영주(2001). 창지사)

5) 사후 검사

사후검사는 10주 동안의 실험 활동을 실시한 후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E-mail을 통하여 질문지를 발송한 후 어머니가 평정하여 본 연구자에게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후에 두 집단 모두에게 E-mail로 사후검사 결과와 자료를 보내주어서 어머니와 영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1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두 집단별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해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 검증을 실시한 후 집단 내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활동 16회를 각 활동마다 촬영하여 그 가운데 일어난 유아의 변화 내용과 어머니와의 형식적·비형식적 면담내용, 그리고 마지막 평가회에서 있었던 어머니들의 응답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과 영아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집단별로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9> 영아의 정서지능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실험 집단	3.67	0.42	3.75	0.45	4.31***
통제 집단	3.66	0.37	3.67	0.36	1.31

*** p < .001

집단별로 정서지능의 사전 사후 평균값을 paired-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4.31, p<.001),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를 실시한 집단 영아의 정서지능 점수가 향상되었으므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과 영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10> 영아의 하위영역별 정서지능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자기 정서 인식	실험 집단	4.13	0.31	4.54	0.29	11.6***
	통제 집단	4.14	0.34	4.17	0.37	0.90
감정 조절	실험 집단	3.70	0.18	3.53	0.16	-5.25***
	충동 억제	3.64	0.14	3.63	0.11	-0.40
자기 정서 이용	실험 집단	3.66	0.15	3.73	0.22	1.25
	통제 집단	3.68	0.15	3.69	0.12	0.36
타인 정서 인식	실험 집단	3.39	0.15	3.41	0.12	0.42
	통제 집단	3.40	0.13	3.41	0.16	0.32
대인 관계 기술	실험 집단	3.61	0.21	3.76	0.18	4.63***
	통제 집단	3.55	0.14	3.58	0.18	0.55

*** p < .001

하위영역별로 영아의 정서지능 점수를 살펴보면, 사전 · 사후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사전 정서지능 점수와 사후 정서지능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은 실험집단에서 평균 0.41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에서 0.03이 증가하였다.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11.6$, $p<.001$),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는 실험집단에서 평균 0.17이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에서는 0.01이 감소하였다.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역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5.25$, $p<.001$),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자기 정서이용은 실험집단에서 0.07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에서 0.01이 증가하였다. 또 타인 정서인식 및 배려는 실험집단에서 0.02, 통제집단에서 0.01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대인관계기술은 실험집단에서 0.15가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에서 0.03이 증가하였다.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4.63$, $p<.001$)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집단 별로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11>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사전·사후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실험 집단	4.01	0.51	4.16	0.41	3.79**
통제 집단	4.02	0.51	4.02	0.50	-0.11

** p < .01

집단별로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의 사전·사후 평균값을 paired-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3.79, p < .01),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를 실시한 집단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점수가 향상되었으므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의 활동 16회를 각 활동마다 촬영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내용, 어머니와의 형식적·비형식적 면담내용, 그리고 마지막 평가회에서 있었던 어머니들의 응답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과 영아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분석에서 얻을 수 없었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1) 프로그램 초기에 나타난 반응

(1)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고민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아이의 성격, 사회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 특별히 고집 피우는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나온 문제에 대하여서는 다음 ‘어머니와의 만남’ 시간에 그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 제 1회

(수업을 마친 후 어머니가 다가와서)

어머니 1: 우리 애는 고집이 진짜 세요, 제가 8년 만에 낳은 외동아이라서 그런지 정말 자기 멋대로라서 어디가면 다른 애들 엄마한테 미안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 3회

(놀이를 마친 후 어머니와의 만남 시간에)

어머니 1: 저희 아이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한 번 우는데 달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넘어가게 울어요, 어제도 고집부리다가 아빠한테 되게 맞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어머니2: 물놀이나 모래놀이처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놀이가 좋대요,
재제 없이 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해줘요,

어머니3: 우리 애도 너무 심해요, 쇼핑몰에 가서 들어 누워요, 그럴 때 주스
를 물려주면 딱 그쳐요, 다른 방법이 없어,

(2) 영아의 물건에 대한 집착, 소유욕

영아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물건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매우 많이 나타
내었다. 특히 몇몇의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친구와 나눠 써야
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어려워하였다. 계속적으로 강요했을 경우 울고 떼
쓰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 때 어머니들은 다른 물건으로 대치하여 영아의
관심을 돌리거나 물이나 주스 사탕 등을 먹이는 행동을 보였다.

* 제 1회

(유모차에 곰돌이 인형을 태우고 가서 동굴 속에 데려다 주고 오는 놀이에
서)

영아1: (곰돌이를 내려주고 돌아왔지만 친구들에게 유모차를 넘겨주지 않으
려고 꼭 잡고 있다)

어머니1: 자 이제 다른 친구에게 넘겨줘야지,

영아1: 안돼~~(버티고 있다)

어머니1: 자~빨리 줘,

교사: 한성아 친구들 한 다음에 또 하자,

영아1: 아~아(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

어머니1: (목청이 높아지며)친구가 기다리잖아,

(강제로 손을 놓게 하고 다음 영아에게 넘겨준다)

* 제 4회

(신체 놀이하며 슬래엿던 유아가 가면을 벗지 않으려 하며)

교사: 자 이제~ 선생님 주세요.

영아1: 노~ 노~

싫어.

어머니1: 선생님 드리는 거지?

영아1: (뒤로 뛰어가며) 아냐~

교사: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하지.

영아1: 싫어

교사: 그러면 이번에 채윤이가 한 번 더 슬래하고, 다음번엔 친구 하도록 꼭 주는거야~ 알았지?

* 제 5회

(실베기 놀이 후에 영아의 손에 물감이 묻어서 한 어머니가 물티슈를 꺼냈다)

어머니1: 자~ 손 닦자(물티슈로 영아의 손을 닦인다)

영아1: 아야 아야~

어머니1: 엄살은...

어머니2: 저희도 하나만 주세요.

영아1: (물티슈를 뒤로 감추며)으응~~~~안돼.

어머니2: 너희 엄마거야?

영아1: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2: 그래도 하나만 줘라~

영아1: (싫다는 듯이)으응~~

어머니 1: 엄마 줘!(뺏어서 뽑아서 준다)

2) 프로그램 중기에 나타난 반응

(1) 영아의 활동성 증가와 어머니의 욕심

프로그램 중기에 들어가면서 몇몇의 남아들은 익숙해져서인지 활동적이고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놀이하다가 교실을 한 바퀴 뛰고 오는 행동을 즐기는 남아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집중력 있는 모습이기를 바라며 잡아서라도 활동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였다.

* 제 8회

(전지에 영아의 몸을 그리고 나서)

영아 1: (뛰어가려 한다)

어머니 1: (잡으며)안돼~ 이리와,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영아의 몸을 감싸고) 엄마랑 같이 눈 그려보자, 희성이 눈~

영아 1: (엄마 손에 이끌려 함께 그린다)

어머니 1: 자~이번엔 코~

영아 1: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 한다)

어머니 1: 그래, 희성이가 한 번 그려봐,

영아 1: (색연필로 긁적인다)

* 제 10회

(영아가 시계에 스티커를 붙인 후 완성한 듯이 말한다)

영아 1: 엄마, 됐어 다 했어~

어머니 1: 아직 안됐어. (웃으며)시계는 시계다워야지.

(아이 손을 이끌며)이렇게 더 붙여보자~

시계바늘도 만들어야지.

영아 1: 다했는데...

어머니 1: 민주야 몇 시로 할까?

9시?

영아 1: (고개를 흔들다.)

어머니 1: 자~ 3시 붙이자~(어머니가 스티커로 열심히 붙여 완성한다)

(2) 소근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관심과 독립심

개월 수가 많은 영아일수록 소근육 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풀칠하기 손가락질하기 등의 활동을 반복하는 것을 즐겼다. 이 때 영아는 실수를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와의 만남’ 시간을 통하여 24~36개월의 시기가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것을 나누며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또한 15회 때에는 영아가 가위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토를 길게 만들어 가위로 잘라보는 놀이도 하였다.

* 제 7회

(종이를 사람모양으로 그린 후)

어머니 1: 이거 오려야겠다.

영아 1: 엄마! 위험해.

내가 할게.

어머니 1: 손서가 할 수 있겠어?

영아 1: 어, 너무 위험해.

내가 해줄게.

어머니 1: 그러면 엄마가 종이를 잡아 줄게, 손서가 오른손에 이렇게 끼고(가위를 잡도록 도와주며) 잘라봐.

영아 1: (조금 어려운 듯 가위로 조금 잘랐다)

어머니 1: 잘했어~ 어렵지, 이제 엄마가 해줄까?

영아 1: 아~ 내가.

어머니 1: (가리키며) 여기까지만 손서가 도와줘~그 다음은 엄마가 잘라줄게.

* 제 10회

(풀칠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보이며)

어머니 1: 재민아 이제 그만.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래.

영아 1: (계속해서 풀칠해서 종이에 붙인다)...

어머니 1: 재민아 그만하자~

영아 1: (좀 더 빠르게 열심히 붙인다)

어머니 1: ...

영아 1: (웃으며) 다 붙였네~

교사: (웃음으로 답하며) 재민이 다 붙였어?

3) 프로그램 말기에 나타난 반응

(1) 영아의 긍정적 표현 증가

프로그램 말기가 되면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또래 간에 고맙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칭찬받는 행동을 즐겨하였다.

* 제 14회

(책상에서 풀이 맞은편에 있어서 부탁하며)

영아1: 진하야 풀하나 줄래?

영아2: (풀을 건네준다) 여기

영아1: 고마워~

* 제 12회

(방석에서 건너뛰기를 하다가 들이서 부딪혔다)

영아1: 손서야 미안~

(말한 뒤 움직여진 방석을 제자리로 정리한다)

영아2: (머리를 만지고 있다)....

영아1: 괜찮아?

어머니1: (놀라워하며)와~ 우리 명훈이 여기서 정말 성숙해졌어요~~

(방석으로 배 태워주기를 하며)

어머니1: 상혁아 진서 좀 태워줘~

영아1: 타~(진서를 방석위에 앉게 한다)

꼭 잡아~(방석을 잡고 끌어준다)

영아3: 까~~~(좋아서 웃는다)

영아1: 다 왔어.

영아3: 고마워~(다 탄 후에 인사한다)

* 제 15 회

(영아들은 활동 후 정리한 물건을 교사에게 건네준다)

영아1: (점토 도구 바구니를 건네며) 여기요~

교사: 고맙습니다~

영아2: (가위 바구니를 건네준다)...

교사: 연수야~고마워~

영아2: (다른 것을 또 건네준다)

교사: 어이구~ 고마워~ 연수는 정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영아2: (웃으며 좋아한다)

4)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된 반응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부분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영아가 자유롭게 정서적인 표현을 하도록 한 것이 좋았고,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과 관련된 놀이와 노래를 했던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었으며, 집에서 해주기 번거로운 신체놀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놀이가 좋았다고 하였다.

물감놀이, 점토놀이, 풍선놀이, 공놀이, 릴레이 게임, 거미줄놀이 등이 영아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혔다. 어머니들은 무엇보다도 영아가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였고, 영아가 즐거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보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아의 반응에 대해 어머니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놀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5) 어머니들이 인식한 영아의 변화

어머니들은 영아가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교사와 또래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호기심과 표현력이 증가하였고, 즐겁게 놀이하며 놀이 기술을 터득하고, 가정으로 놀이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영아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

1

“우리 아이는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리고, 배웠던 놀이를 기억해서 집에서 다시 하며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그것이 참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11,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2

“배우고 들었던 것에 대한 관심이 실생활에서 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생겼고, 선생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서 기쁩니다.” -(연구 참여자5,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3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새 많이 성숙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17, 12회 수업 중에서)

4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좀 더 표현이 많아진 것 같고, 표정도 좋아져서 부듯합니다” -(연구 참여자3,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5

"호기심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친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회성을 길렀으면 하는 기대로 프로그램에 참여 했는데, 아이가 이제는 수줍어하지 않고 친구나 선생님께 표현도 해서 너무 기뻐요" -(연구 참여자 7,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6

"우리 아이는 이 수업을 너무 재미있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어해요.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끝나는 시간을 아주 많이 아쉬워해요. 이제는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19,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6)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어머니들의 변화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아의 발달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다양한 놀이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놀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에 대한 관심 증가, 자녀와의 놀이 및 교육에 대한 자신감,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뿌듯함 경험 등이 답변이었다. 다음은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모아놓은 것이다.

1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이할 수 있었던 부분이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14,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2

"제가 놀이를 배워서라도 놀게 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배움이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 (연구 참여자6,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3

"규칙적으로 놀아주게 되어 참 다행이구요.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친밀감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아이의 성격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되었어요." - (연구 참여자13,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4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기다려주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아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2,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5

"함께 놀아주고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20,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에서)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paired-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모두 실험집단에서는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해 집단별로 paired-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에서만 영아의 정서지능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므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아의 정서지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김온기(2000)가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아의 발달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자조성,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의 5가지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영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구분하고, 상황에 따른 느낌을 구분하며,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내려갔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에서 충동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감정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친구들과 함께할 기회가 거의 없어 자신이 원하는데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는 집단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례 기다리기, 물건 공유하기, 양보하기 등의 요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과 자극에 대한 흥분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원영 · 박찬옥 · 노영희(1993)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인 감정조절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유아들은 인내와 절제에 대한 수행 능력이 아주 낮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경희(1998)는 유아들은 탈 중심화가 이루어진 뒤에 조망수용이 가능하며,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인식 및 표현이 발달한 후에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본 연

구는 이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자기 정서 이용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자기정서이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혜경(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아의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타인 정서인식 및 배려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영아들과 경험하지 않은 영아들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영아의 연령이 만 2세로서 발달 특성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아의 대인관계기술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영아의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영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된 교사와 친구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문제 3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곽현주(1995)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실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정서교육 활동이 교사나 또래 등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해 집단별로 paired-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에서만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므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

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를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 자녀 간 관계를 증진시킴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교사와 다른 부모들을 관찰함으로써 놀이 상대자로서의 기술을 향상시켜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유능감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영희 · 권혜진 · 노상경(2004)은 걸음마 시기부터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자녀의 탐색 욕구가 왕성해 짐에 따라 가정 내의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의사 표현을 시작하는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신체적 소진의 일과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과 사회 참여의 제한에 따른 고립감 등이 복합되어 정신적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은 또래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우영, 최진아와 이숙(1998)의 연구에서는 주위 사람과 가족원으로부터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 자녀양육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현심 · 김지신(1997)은 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스러워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서 작용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과 더욱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램 초기에 영아는 물건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나타내었고,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타냈다. 그러나 중기로 갈수록 영아의 활동성 증가와 어머니의 욕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소근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관심과 독립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말기가 되면서 영아에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또래 간에 고맙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정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적인 결과를 보충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어머니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영아에 대한 관심 증가, 자녀와의 놀이 및 교육에 대한 자신감,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 등이 있었다. 이는 이영·김온기(2000)의 연구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어머니가 영아에게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보다 더 정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과제 수행 시 영아의 동기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아의 정서지능이 향상되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영아의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과 대인관계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영아의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아의 자기 정서이용과 타인 정서인식 및 배려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램 초기에는 영아의 물건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로 갈수록 영아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어머니의 욕심, 그리고 소근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관심과 독립심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말기에는 영아에게서 또래 친구들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어머니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영아에 대한 관심 증가, 자녀와의 놀이 및 교육에 대한 자신감,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뿌듯함의 경험 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영아의 발달과 교육 그리고,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유아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10주 동안 16회가 실시가 되었다. 이는 단기간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다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서지능 및 다른 발달에 대한 영아용 검사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과 욕구에 맞는 실외활동들을 첨가시켜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어머니가 효과적인 실외놀이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개월에 따라 발달 수준의 차이가 현저함으로 개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정보교환 및 교류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여 함께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0대 출산모와 고령 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인숙(2005).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은복(199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지각된 자기능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정인(199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현주(1995). 정서교육활동경험이 유아의 감정이입 및 사회·정서적 문제 해결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기(1997). 유아점토놀이. 서울: 보육사.
- 김경희(1997).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라(2000). 부모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2000). 체험적 음악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희(2004). 다도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2002). 전래놀이동요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익균 · 노은호 · 박금희 · 이미정 · 이순영 · 이행숙 · 이혜숙 · 정해은 · 조미환 · 조혜경(2002). 보육학개론. 서울: 교문사.
- 김향은 ·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김향자 · 류지후 · 박정선 · 성의정 · 연미희 · 한임순(2000). 24~36개월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김현경 · 이지은(1998). EQ 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 김혜경(2002). 효과적인 보육을 위한 지침서 -제 1권 영아의 발달 특성 및 지도-. 서울: 다음세대.
- 김혜경(2002). 효과적인 보육을 위한 지침서 -제 2권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다음세대.
- 김희진(1996). 감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린이육영회(편), 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7-80. 서울: 미래유아교육학회.
- 김희진 · 김언아 · 홍희란(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희진(2002). '저소득층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과정 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3),43-66.
- 노성향(2005).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1), 347-357.

- 도현심 · 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미옥 · 임미혜(2000). 유아의 EQ 증진을 위한 정서교육 활동. 서울: 학지사.
- 문용린(1998). 정서지능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3-16.
- 문용린(2001). 학교에서의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 62, 27-53.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49.
- 박성연 · 도현심(1999).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 배지혜 · 서혜영 · 이숙현(2002). 사무직 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 과 부모역할만족도. 한국가정관계학회지, 7(2), 43-64.
- 백중열(2005). 우뇌기능에 기초한 미술프로그램이 아동의 뇌 선호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삼성복지재단(2003). 삼성어린이집 영아프로그램 2세. 서울: 다음세대.
- 성신유치원(2001). 통합적 문학활동을 통한 유아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시범유치원 운영보고서.
- 성태제(2003).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손세경(1997). 동작놀이 참여와 유아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성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애옥 · 신은희(2001). 유아와 함께 만든 동화를 활용한 손동작. 서울: 양서원.

- 안재신(1996).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오영희 · 송영란 · 김종선(2002).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서울: 동문사.
- 오영희 · 우수경 · 전호숙 · 신금주(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정서능력 향상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경기: 21세기사.
- 유우영 · 최진아 ·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 이영주(2001). 엄마 · 아이 놀이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이기숙 · 이영자(1993). 2~3세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이기순(2003). 주부의 취업여부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1997).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순형 · 이경화 · 문무경 · 이영미 · 한유진 · 이성옥 · 권혜진 · 김영명 · 권기남 · 김혜라 · 안소영 · 임송미 · 엄성애(2000). 발달수준별 주제탐구 표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서울: 창지사.
- 이순희 · 김희동 · 김미애(1999). 영아를 위한 놀이지도. 서울: 교육 아카데미.
- 이영 · 김은기(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관계 및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3), 67-84.
- 이영 · 신은주 · 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3(3), 150-165.

- 이영자 · 이종숙 · 신은수(1999). 유아의 정서 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157-186.
- 이영자(2000).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이영자 · 이종숙 · 신은수 · 곽향림 · 이정옥(2001). 1, 2세 영아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서울: 다음세대.
- 이영자 · 이종숙 · 신은수 · 곽향림 · 이정옥(2001). 탐색 및 놀이활동 중심의 1,2세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133-154.
- 이원영(1996). 우리나라 영 ·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감성교육. 유아교육 학술대회 논문, 41-66.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이원영 · 박찬옥 · 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65-91.
- 이정희 외 2인(2000). 2~3세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이정환(1998).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 이주은(2004).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선(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경(2003).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경(2003). 감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영(2000).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아 · 박낭자 · 이순영(1997). 영아중심 놀이 활동 프로그램. 서울: 교육 아카데미.
- 임미혜(1998).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유아정서교육과정의 효과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신(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형아(2004).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희(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장영희 · 권혜진 · 노상경(2004). 자녀양육지원 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학술세미나.
- 정의영(2003). 영아 조기교육의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황순(2001).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창의성, 정서지능 및 다중지능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 양연숙(1997).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81-193.
- 조복희 · 현은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지성애 · 김영주 · 엄정례 · 조경서(1998). 영아(0~36개월)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 전우경(2003).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 · 성원경(2004). 유아놀이와 게임. 서울: 학지사.
- 최보가 · 문영경(200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 · 정서 발달. *대학가정학회지*, 42(1), 39-51.
- 최혜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한국보육정보연구소(1998). *엄마가 실천하는 유아교육-가정유치원-*. 서울: 창지사.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의명 · 박찬옥(1997).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 Bowen, G. L.(1982). Social network and the maternal role satisfaction of formerly 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5, 77-85.
- Fiese, B.(1990). Playful relationship: A contextual analysis of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symbolic play . *Child Development*, 61, 1648-1656.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 Basic Book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 Books. Fraenkel & Wallen.
- Greenberg, M. T., Kusche, C. A., Cook, X. T., & Quamma. J. P.(1995). Promoting emotional competence in school age children: The effects of the PATHS curriculum.
- Mayer, J. D., & Geher.(1997).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2), 89-114.

- Mayer, J. D., & Salove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3–34. New York : Basic Books.
- O'Connell, B., & Bretherton, I.(1984). Toddler's play, alone and with
mother: The role of maternal guidance. In I.
Bretherton (Ed.), Symbolic play: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Orlando, FL: Academic Pre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hapiro, L. E.(1997). How to raise a child with high EQ.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

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Infant Play Program」 on Infant's EQ and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Kim, Hyo–J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er executed 「Mother–Infant Play Program」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its effect on child's EQ and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The program was further be evaluat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hange among the infants and the mother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1. How does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affect infants's EQ?
2. How does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affect mothers'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3. In the process of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 how did

the infants and mothers react?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40 two-year-old infants and 40 of their mothers, thus the total of 80 people(40 pairs) who lived in the Kyong-gi district(Bundang and Suji).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nsisted of 20 pairs of mother-and-child who participated in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run by the J church. The comparative group of 20 pairs of mother-and-child were selected from three children's libraries which accepted the request of research assistance.

The Emotional Quotient Test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Teacher's Edition of Infant's EQ Test Evaluation Standard" made by Kyung-Hwe Kim in the year 1999. To evaluate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the research tool of Woo-Kyung Jun(2002) was used after editing.

The previously established research issues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and the non-participants.

The following is an analysis by the EQ sub-elements.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from the non–participants concerning the child's self–emotional recognition/expression and personal relationship skills, which are constituent elements of EQ.

There appeared a negativ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from the non–participants in the rate of the child's emotional control and restraint on impulsiveness.

In the matter of the child's emotional usage and the emotional awareness/consideration of others, there appeared to be no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Secondly,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Mother–Infant Play Program」 from the non–participants.

Thirdly, This is the infants and mothers's reaction about the program, The infants showed changes in showing traits of having more interest toward the teacher and fellow classmates, acquiring social skills, improvement of curiosity and self–expression, extending the play activities into their home. The mothers increasingly tend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 more concern, acquire confidence in playing and educating their child, shift in manners of interaction, acquire confidence as their mothers.

부 록

- 부 록 1. 영아의 정서지능 검사 질문지
- 부 록 2. 부모 역할 만족도 질문지
- 부 록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부 록 4.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활동사진

정서지능 평정 척도

※ 다음의 각 번호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2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머니께서 유아와 생활하면서 관찰하시고 느끼신 것을 기초로 유아에 대한 인상에 근거하여 보다 가까운 쪽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1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얼굴 표정이 일치한다.	⑤ ④ ③ ② ①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 좋다고 말하나 얼굴은 좋은 표정이 아닌 경우)
2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다.	⑤ ④ ③ ②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다.
3	친구와 싸울 때의 느낌과 야단을 맞을 때의 느낌을 구분한다.	⑤ ④ ③ ② ①	친구와 싸울 때의 느낌과 야단을 맞을 때의 느낌을 구분하지 못한다.
4	유아의 얼굴표정만 보면 기분을 알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유아의 얼굴만 보고는 기분을 알 수 없다.
5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예, 슬프다고 말하기, 울기, 우울한 표정)	⑤ ④ ③ ② 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정표현이 어색하거나 무표정하다.
* 6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예, 벌을 받으며 웃기,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웃기)	⑤ ④ ③ ② ①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한다.

7	기쁜 일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 (예, 웃기, 껴안기, 기쁘다고 말하기)	⑤ ④ ③ ② 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정표현이 어색하거나 무표정하다.
8	유아의 얼굴표정이 풍부하다.	⑤ ④ ③ ② ①	유아의 얼굴에 표정이 없다.
* 9	유아가 화가 나서 활동이나 놀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⑤ ④ ③ ② ①	유아가 화가 나서 활동이나 놀이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10	감정이나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⑤ ④ ③ ② ①	감정의 변화가 안정되어 있다.
* 11	유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유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12	유아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려 한다.(예, 화가 날 때 화를 풀기위한 시도)	⑤ ④ ③ ② ①	유아가 격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 13	기분이 나빠지면 화풀이를 행동으로 한다. (예, 물건 던지기, 밟기, 때리기 등)	⑤ ④ ③ ② ①	기분이 나빠져도 화풀이를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 14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리치며 울거나 데굴데굴 구른다.	⑤ ④ ③ ② 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어도 참는다.

* 15	함께 놀이를 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함께 놀이를 할 때 자기 차례를 지키려고 기다린다.
* 16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을 못하고 쉽게 주의가 흐트러진다.	⑤ ④ ③ ② ①	주위의 소리에 상관없이 꽤 오랫동안 한 활동을 지속한다.
* 17	이 일, 저 일을 시작만 하고 끝맺음을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 짓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 18	꼭 해야 되는 일이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한다.
19	하고 싶어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20	옷 개기, 정리하기 등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한다.	⑤ ④ ③ ② ①	쉬운 일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21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한다. (예: 퍼즐 맞추기, 레고 조립, 게임 활동, 작업 등)	⑤ ④ ③ ② 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 쉽게 그만둔다.
22	성인의 격려가 없어도 스스로 과제를 완성한다.	⑤ ④ ③ ② ①	성인의 지속적인 격려가 없이는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다.

23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⑤ ④ ③ ② 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24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⑤ ④ ③ ② ①	“혼자는 못해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25	당장의 작은 결과나 성취보다는 더 큰 결과를 위해 기다릴 줄 안다.	⑤ ④ ③ ② 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의 작은 결과에 만족한다.
26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기대를 한다.	⑤ ④ ③ ② ①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기대를 한다.
27	활동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하고자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활동에서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서둘러 끝낸다.
28	과제의 완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과제의 완성에 관심이 없으며 노력하지도 않는다.
29	놀이를 할 때 친구에게 협조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놀이를 할 때 친구를 방해한다.
30	친구들의 감정표현에 적절히 반응한다. (예, 슬퍼할 때 위로의 말이나 행동, 웃는 친구에게 웃음으로 반응하기)	⑤ ④ ③ ② ①	친구들의 감정표현에 반응하지 못한다.

* 3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 (예, 친구가 싫다고 하여도 반복해서 같은 행동하기)	⑤ ④ ③ ② 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
32	친구가 다쳤거나 울고 있으면 관심을 보인다.	⑤ ④ ③ ② ①	친구가 다쳤거나 울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지나친다.
33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도움이 필요해도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다.
34	친구가 청하면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양보한다.	⑤ ④ ③ ② ①	친구가 청하여도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논다.
35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참는다.	⑤ ④ ③ ② ①	다른 사람에 관계치 않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한다.
36	놀이 규칙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⑤ ④ ③ ② ①	놀이 규칙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37	성인에게 친근함을 보이며 좋아한다.	⑤ ④ ③ ② ①	성인 앞에서 어색해하고 피한다.
38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칭찬에 관심이 없다.

39	남이 하는 일에 관심을 표한다.	⑤ ④ ③ ② ①	남이 하는 일에 무관심하다.
40	먼저 말을 거는 등 관계에서 적극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관계에서 소극적이다.
41	지시를 잘 따른다.	⑤ ④ ③ ② ①	여러 번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
42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쉽게 참여한다.	⑤ ④ ③ ② ①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
43	새로운 친구하고도 쉽게 어울린다.	⑤ ④ ③ ② ①	새로운 친구와는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44	화가 났을 때 말로 문제를 해결한다.	⑤ ④ ③ ② ①	화가 났을 때 말보다는 공격적 행동을 먼저 사용한다.
45	다른 친구들이 좋아한다. (예: 함께 놀기를 원함)	⑤ ④ ③ ② ①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부 록 2>

부모 역할 만족도

※ 다음은 부모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만족도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여 각 문항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5점 까지의 점수로 나타내 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1	자녀를 갖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할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가 됨으로써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내게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로써 나는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로써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키우는 일은 생각만큼 즐거운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주 집에서 자녀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는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장일과 비교해 볼 때,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 큰 만족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 인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역할을 하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자녀에게 좋은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큰 만족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를 키우는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일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자녀와 같이 있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는 내게 큰 짐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가 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보상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노력과 어려움을 능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와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불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아를 완성하는 최상의 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와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보살필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아이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지루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가 아는 다른 부모들보다 부모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항상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당신의 부모로서의 만족도는? (1-7점 중 선택)	① ② ③ ④ ⑤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부 록 3>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사회 · 정서발달 교육내용

영아가 긍정적인 자기 인식적 정서를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였다.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 가지기, 자신의 이름 말하기, 내 물건 인식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말하기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창의적인 자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성취감 갖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만족감 느끼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격려와 칭찬, 부모님의 연계적인 노력 등을 통해 자아 존중감 형성을 돕는다. 만 2세 영아들은 연령적으로 볼 때 집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집밖의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친구를 만나 본 적이 없었다. 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관심 갖기, 친구와 성인에게 인사하기, 친구 이름 알아보기, 친구에게 놀잇감 전달하기, 협동 작업하기 등의 활동은 또래 친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영아는 집단 활동 경험을 통해 점차로 그룹으로 모여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이 순간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타인의 언어적 지시에 귀기울임으로써 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떼쓰는 아이들 또한 언어적으로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다른 친구의 감정 이해하기, 상황에 맞게 행동 조절하기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도록 유도하였다. 영아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아직 사회적 기술이 적어 또래와의 마찰이 많은 시기이다. 함께 나누어 쓰기, 양보하기, 도와주

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인사하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 고맙다고 이야기하기, 친구 안아주기 등의 활동들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친구와의 협동 작업을 통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 신체발달 교육내용

엄마-아이 놀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 연령인 영유아는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대근육 활동을 꼽는다. 이를 반영하여 매시간 각종 소도구를 포함한 대근육 활동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소도구는 풍선, 공, 고무줄, 막대, 팔 주머니, 장애물 등으로 2세에게 적절한 이동·비이동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된다. 이동 동작으로는 기기, 걷기, 달리기, 뛰어 넘기, 두발 모아 뛰기, 비이동 동작으로는 구부리기, 뺨기, 구르기 등의 활동을 조작적 동작으로서는 던지기, 받기, 차기, 치기 등의 활동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아직 불완전한 운동 능력들이 발달되고 불유쾌한 감정들이 해소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소근육 발달은 더욱 미숙하므로 시각과 촉각으로 다양한 사물에 대한 조작을 경험하고, 풀칠하기, 구슬 꿰기 등의 미술 작업을 통해 신체를 조절할 기회를 제공한다.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 및 악기를 이용한 활동들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 준다.

☞ 인지발달 교육내용

2~4세는 전조작기의 발달 단계에 있으면서 기억과 사고의 발달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영아에게 다양한 특성(예: 재질, 모양, 크기 등)을 가진 사물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도록 하였다. 영아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었으며

오감각과 운동 기능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영아의 인지적 탐색 과정에서 교사가 적절히 지원(예: 근접발달지대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보고 배우도록 하였다. 만 2세는 표상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표상 및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정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억해 내기, 원인과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자료의 물리적 변화 관찰하기, 생물에 관심 갖기, 주의 집중력 기르기, 시·청각 자료 변별 능력 기르기, 같은 물건 짝짓기, 색깔과 모양 변별하기, 수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하기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 언어발달 교육내용

영아와 가능하면 자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언어 발달과 개념 발달을 촉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 줌으로써 어휘, 문법, 의사소통 규칙, 상징과 이야기 구조 같은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주의 깊게 듣기, 듣고 지시에 따르기,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일상 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이해하고 말하기, 새로운 어휘 익히기, 동화 듣기, 경험이나 생각·느낌을 말하기, 글자에 관심 가지기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였다.

<부 록 4>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의 활동사진

<p>2회 주제: 달님 해님</p>	   
<p>3회 주제: 동물</p>	 
<p>4회 주제: 친구</p>	   
<p>5회 주제: 거미</p>	    
<p>6회</p>	  

<p>주제: 색깔</p>	
-------------------	--

<p>7회 주제: 얼굴 표정</p>	
---------------------------------	--

<p>8회 주제: 몸</p>	
-------------------------	--

<p>9회 주제: 봄</p>	
-------------------------	--

<p>10회</p> <p>주제: 도형</p>	
<p>11회</p> <p>주제: 신문</p>	
<p>12회</p> <p>주제: 물고기</p>	
<p>14회</p> <p>주제: 과자 놀이</p>	

<p>15회 주제: 점토 놀이</p>	
<p>16회 주제: 평가회</p>	